



뉴스라인은 일간지, 잡지, 컴퓨터 통신 정보란 등에 올라 있는 기사 중에 광학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해서 게재하고 있으며, 날짜와 게재지를 수록하지 않습니다. 의문 사항 있으신 분은 '광학세계' 편집부로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광산업>

산자부, '생-광-통' 21C 돌파산업

산업자원부는 생물산업과 정보기술(IT), 광, 초전도, 멀티미디어, 환경설비산업 등을 21세기 '돌파산업'으로 선정, 전략적으로 중점 육성하기로 했다.

또 정보기술산업과 제조업을 성장의 양축으로 해 산업전체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산업구조의 '쌍두마차 체제'를 구축하고, 기업과 대학, 정부, 노-사, 시민이 협력하는 국가 기술혁신체제(NIS)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호 산업자원부 장관은 2월 16일 과천청사 산자부 대회의실에서 김대중대통령에 대한 연두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사업계획을 보고했다.

김 장관은 "60~70년대 섬유 신발 등 노동집약 경공업을 성장주력으로 삼아, 80~90년대는 자동차 전자 등 자본기술 집약산업으로 이어졌으나, 21세기에는 생물-광-초전도 산업 등 지식집약산업이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21세기 돌파산업의 육성을 위해 주요 산업-문화단지에 디자인 혁신센터(DIC)를 설치하고 수출유망상품의 디자인 혁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생물산업 육성을 위해 총 791억원을 투자, 춘천 생물산업벤처기업지원센터와 대전 생물의약지역기술혁신센터, 인천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 등을 완공해 생물산업혁신거점을 네트워크화하고 생물벤처기업 등 핵심기술기반형 벤처창업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광산업 부문에서는 2003년까지 광주 첨단산업단지를 세계적 광산업 집적단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광제품기술개발, 창업보육 지원 등에 4081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삼성항공, 구조 조정 성공 올 695억 흑자전망

삼성항공이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바탕으로 수익성 향상의 발판을 다지고 있다.

삼성항공은 지난해 10월 전망이 불투명했던 항공사업 부문을 한국우주항공산업이란 독립법인에 양도하고 적자사업 부문인 자동차설비, 공작기계, 자동화설비 등을 정리했다.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부문을 대폭 정리함으로써 이자비용이 크게 줄게 됐고 이에 따라 영업실적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부문 양도에 따라 일반주식 1천7백만여주에 대해 매수청구권이 들어왔지만 삼성전자가 이중 8백만주를 매입하기로 결정해 수익과 재무구조에 미칠 영향이 크게 줄었다.

구조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비교적 수익성이 좋고 사업전망도 밝은 5개 부문만 남게 됐다. 삼성항공은 국내 유일의 항공엔진 제조업체로 신설된 항공 통합법인이 안정된 수요처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624억원의 적자에서 탈피, 올해 695억원가량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굿모닝증권은 삼성항공이 적

해외 소식

작년 일본 디지털카메라 출하량 47% 증가

지난해 일본의 디지털카메라 출하가 대미수출 급증에 힘입어 50% 가까이 증가하는 호조를 보였다.

일본전자공업진흥협회(JEIDA <http://www.jeida.or.jp>)가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99년 일본의 디지털카메라 출하대수는 482만1000대로 전년대비 47%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출하 중 국내용은 21% 증가한 145만대, 수출은 특히 미국 지역이 호조를 보여 전년대비 62%나 늘어난 337만1000대를 기록했다. 금액은 총 2135억엔을 기록했다.

JEIDA는 '200만 화소를 넘는 고체촬상소자(CCD)를 탑재한 고화질 기능이 대거 등장하면서 가격도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호조를 보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조사는 올림퍼스 광학공업(<http://www.olympus.co.jp>), 산요전기(<http://www.sanyo.co.jp>), 히타치제작소(<http://www.hitachi.co.jp>), 마쓰시타전기산업(<http://www.panasonic.co.jp>), 도시바(<http://www.toshiba.co.jp>), 소니(<http://www.sony.co.jp>) 등 20개사를 대상으로 했다. 20개사의 시장점유율은 거의 100%에 육박한다.

디지털카메라 구매 패턴 '새바람'

일본에서 디지털카메라의 구매 패턴이 달라지고 있다.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지금까지 화질을 결정짓는 고체촬상소자(CCD)의 화소수가 지배해 온 디지털카메라 구매 형태는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고화질 일반도에서 벗어나 줌기능, 렌즈 상태, 디자인 등 기능성이나 외양, 사용 목적 등에 따라 상품을 선별하는 다양성을 뚜렷이 보이고 있다. 제조업체들도 연말 성수기를 겨냥, 기능을 특화하거나 용도와 가격을 조화시킨 다양한 상품군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도쿄와 오사카의 카메라양판점이나 가전 전문점에서는 줌기능, 사용의 편리성 등을 강조한 올림퍼스광학공업의 'C-2020ZOOM' (약 9만엔), 소니의 'SC-F505K' (약 10만엔), 후지사진필름의 '파인픽스1700Z' (6만엔) 등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소니 제품은 독일의 유명 브랜드 칼자이스제 렌즈로 인기를 끌고 있고, 후지필름 제품은 150만 화소이지만 줌기능에 저가를 무기로 호응을 얻고 있다.

또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으로 연하장을 만들고 싶지만 PC가 없는 고객의 경우 카메라와 프린터를 함께 구입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디지털카메라를 전자우편에 주로 이용하는 고객은 데이터량이 적어 송신에 유리한 점을 들어 화소수가 적은 기종을 선택하고 있다. <전자신문>

자부문인 항공과 공작기계사업을 정리한 데다 리드프레임 등 고수익 부문의 매출확대가 예상돼 올해 경영수지가 지난해보다 1,319억원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카메라>

올 디지털 카메라 시장 현황 예상

올해 국내 디지털 카메라 시장이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월 관련업체에 따르면 삼성전자·한국코닥·한국후지필름 등 디지털 카메라 업체들은 올해 국내 디지털 카메라 시장이 IMF 이후 장기간 계속된 침체를 벗어나 지난해 3만 5000대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난 15만대에 달할 것으로 예측

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저가형PC와 인터넷PC 등의 공급확대로 컴퓨터 보급대수가 부쩍 늘어나 디지털 카메라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기본 환경이 갖춰졌을 뿐만 아니라 전자제품의 디지털화에 대한 전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디지털 카메라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이 주요인이 될 전망이다.

50만원 이상 증가와 100만

국내외 신제품

한국엡손, 디지털카메라 2종 출시

한국엡손은 300만 화소를 표현할 수 있어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에 적합한 디지털카메라 2종(모델명 포토PC800, 850)을 시판한다.

'포토PC800' 과 '포토PC850' 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돼 취급과 조작성이 간편하며 고속이미지 처리를 위한 32비트 버스를 채택, 스포츠 사진에서 사용되는 10프레임 연속모드 촬영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전문가용 '포토PC850' 은 자동과 수동조작이 가능하고 광학 3배줌 기능에 디지털 2배줌까지 작동하면 6배 망원촬영도 된다. 마이크와 스피커가 내장돼 사진 설명을 녹음하고 재생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ST마이크로코리아, 저가형 디지털카메라용 통합 프로세서 공급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코리아 상보성금속산화막반도체(CMOS) 이미지센서와 함께 적용되는 저가형 디지털카메라 전용 통합 프로세서를 국내 공급한다.

'SV0680' 는 하나의 인쇄회로기판(PCB) 디자인에서 이미지센서 전환만으로 CIF와 VGA급의 2가지 모델을 생산함으로써 제품을 차별화한 것이 특징이다.

세가 드림캐스트용 디지털카메라 출시

일본 게임기업체 세가엔터프라이즈(<http://www.sega.co.jp>)가 세계 최초로 가정용 비디오게임기 전용 디지털카메라를 내놓았다.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자사의 가정용 비디오게임기 '캔뮬폼낸뵈' 전용 디지털비디오 겸 카메라 '드림아이(Dreameye)' 를 6월에 출시한다. 58×80×19mm 크기에 무게 약 28g(전지 제외시)으로 작고 가볍다. 31만 화소의 고체촬상소자(CCD)를 탑재하며 해상도가 640×480도트다. 내장한 플래시메모리에 정지영상을 최대 31컷 수록할 수 있으며 동영상 처리도 가능하다.

에이직프라자, 9만원대 디지털카메라

주문형반도체 전문벤처기업인 에이직프라자는 자체 개발한 개당 20달러짜리 CMOS센서칩을 장착한 초저가 디지털카메라 컨셉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CMOS센서를 사용하는 10만화소급으로 개인홈페이지 제작이나 스티커사진을 만드는 데 좋다. 기존 카메라는 고체촬상소자(CCD)로 화질(100만화소급)이 뛰어난 반면 고가여서 화상통신용 디지털카메라 등은 CMOS센서로 대체되고 있다.

원 이상 고가 제품만 봤을 때 총 5만대 정도 판매가 예상되지만 삼성전자 등 몇몇 업체들이 30만원 전후반의 저가형 제품을 10만대 이상 쏟아낼 것으로 보여 전체 시장 규모가 예상 외로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저가형 9만대, 중·고가형 1만대 등 총 10만대의 디지털 카메라를 판

매할 계획이다. 2월 초부터 80만 화소급 CCD와 누드 디자인을 채택한 '넥스카(모델명 SDC-80)' 의 판매에 들어가고 2월 말에는 후속모델 'SDC-100' 을 30만원 후반의 가격에 선보여 저가형 시장을 본격 형성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한국코닥은 올 판매목표를 지난해보다 30% 늘어난 1만 3000대로 책정하고 'DC290'

등 고급형 모델의 판매에 주력하는 한편 300만 이상 고화소 제품을 연이어 출시, 저가와 고가로 양분되는 국내 시장에서 고가 시장을 확실하게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후지필름은 지난해보다 40% 정도 늘어난 1만대의 디지털 카메라를 판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후지필름은 저가·중가·고가 시장을 모두

공략할 수 있는 폴 라인업을 갖추는 데 주력하는 한편 올 상반기 안에 130만 중급 제품과 430만·600만 화소급을 내놓는다.

일본 리코사의 디지털 카메라를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 신도시시스템은 지난해 8000여대에 머물렀던 판매량을 올해 1만대 정도로 늘리기로 하고 기존의 'RDC-5000'과 'RDC-5300' 등 중가 제품 외에 30만원대의 저가형 제품 2~3개 모델을 상반기 안에 추가, 저가 시장을 중점 공략하기로 했다.

소니인터내셔널코리아(대표 장병석)도 지난해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사이버샷(모델명 DSC-F505)'과 '마비카(모델명 FD-88)' 공급을 크게 늘려 올해 총 1만대를 판매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조직개편 단행 ... 디지털 기업 변신 도모

삼성전자는 디지털 기업으로의 변신을 위해 '정보가전 총괄'을 '디지털미디어 총괄'로 확대하는 등 최근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정보가전 총괄, 미디어서비스사업팀 등으로 흩어져 있던 디지털 관련 사업이 디지털미디어 총괄 산하로 통합됐다.

디지털미디어 총괄 산하에는

디지털영상 디지털비디오 디지털프린팅 컴퓨터시스템 디스플레이 광학기기사업부 등 6개 사업부를 두고 디지털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디지털미디어 총괄은 진대제 대표이사 사장이 맡았다. 진대제 사장은 최근 열린 디지털미디어 총괄 출범식에서 "이번 조직개편으로 삼성전자가 디지털 리더기업이 될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엔터테인먼트 컴퓨팅 네트워크 등 3대 주력사업군에서 각 사업별로 세계 3위 이내에 진입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전자(www.sec.co.kr)가 TFT-LCD(박막 액정표시장치)모니터, DVD P(디지털 비디오디스크플레이어), 프로젝션TV 등 핵심 디지털 제품을 중심으로 올해 안에 중국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모니터와 CD롬, CDMA(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 휴대폰, MP3를 포함해 중국시장 1등 제품을 7개 품목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중국 디지털 제품 시장 선점을 통해 올해 중국 지역에서의 매출을 지난해 대비 30% 증가한 20억달러로 확대하고 '디지털 기업 이미지'를 확고히 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2월 18일 중국

최대 인터넷·PC·종합가전 업체 사장 등 업계 관계자들과 정부 관료, 현직언론, 딜러, 삼성전자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비전 선포식' 및 '디지털 로드쇼'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현대칼라, 디지털 포토시스템 체인 등

(주)디지털 현대칼라는 '현대 디지털 포토시스템' 체인점을 확장하고 있다. 컴퓨터와 디지털카메라 등 장비를 활용해 즉석에서 증명사진을 촬영해 주는 것은 물론 다양한 배경으로 사진을 합성하고 흑백사진 복원, 훼손사진 복원작업도 펴준다. 촬영부터 출력까지 5분이면 완성될만큼 속도가 빠른 것도 특징이다. 창업비용은 3,000만원선이다.

디지털가전 시장 한·일 격돌

국내 디지털 가전시장을 놓고 한국과 일본업체들이 격돌하고 있다. 가장 뜨거운 경쟁을 벌이고 있는 부문은 디지털캠코더. 일본업체들이 90%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디지털캠코더는 시장규모가 지난해 15만대에서 올해는 25만대로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차세대 황금시장이다.

한편 양국이 쌍벽을 이루고

있는 디지털카메라와 DVD플레이어에서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4만 5,000대에서 올해 20만대 이상이 팔릴 전망이다. 디지털카메라는 코닥·리코·후지필름과 삼성전자·삼성항공이 6대 4 시장을 분점하고 있으며 DVD플레이어는 파나소닉·소니·도시바 등과 삼성·LG전자가 절반씩 시장을 분할하고 있다.

소니 인터넷판매 '저가공세'

일본의 소니가 국내에서 유통마진을 없앤 저가의 전자제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해 대리점 판매에 의존하고 있는 가전업체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소니의 인터넷 판매전략은 외국과 국내업체간 경쟁차원을 '온라인' 전자상거래와 '오프라인' 대리점 판매방식간의 대결양상을 띠고 있다. 소니의 높은 브랜드 이미지에다 유통마진까지 없는 제품이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판되면 향후 국내 가전제품의 시장점유율에 적지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소니는 향후 5년내 인터넷을 통한 판매액을 일본 국내판매액의 20%까지 높일 계획이다.

소니인터넷내셔널 코리아측은 그동안 한국내에서 소니제품의

인터넷 판매물량은 미미했지만 향후 판매비중을 계속 높여 나갈 방침이라며 "국내 200여 개의 소니대리점과의 관계를 고려해 대리점 취급모델과 전혀 다른 인터넷 판매 모델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애크비전, 디지털 웨이와 공동 MP3용 디지털카메라 개발

카메라 관련 주문형반도체(ASIC) 및 시스템 전문업체인 애크비전 최근 MP3플레이어 전문업체인 디지털웨이와 공동으로 MP3플레이어용 디지털 스틸카메라를 개발했다고 작년 말 밝혔다.

양사는 이 제품에 대해 최근 동남아지역의 한 업체와 10만대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 이달말 2000대 선적을 시작으로 본격 수출에 나서고 국내시장에도 시판할 계획이다.

제품은 MP3플레이어에 연결해 디지털카메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반제품 형태의 디지털카메라 모듈과 이를 접목시킬 수 있는 기능을 내장한 MP3플레이어로 구성돼 있는데 평소에는 MP3플레이어로 사용하다가 필요시 두 제품을 연결해 30만 화소급 디지털 스틸카메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복합제품이다.

<복사기>

§중고 복사기 불법 제품 판친다

일부 수입업자와 밀수업자들이 수입형식승인을 얻지 않은 일산 중고 복사기를 불법으로 유통시키고 있어 정부의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관련업체에 따르면 최근 국내 복사기 시장이 크게 확대되자 일부 수입업자와 밀수업자들이 일본산 중고 복사기를 불법으로 국내에 반입해 저가로 판매하면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이들이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대당 700만~800만원 정도 하는, 분당 40장을 복사할 수 있는 고급기종으로 가격은 기존 제품가의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산 제품의 경우 국내 판매를 위해선 필수적으로 수입형식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일산 중고 복사기는 모두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이며 주로 밀수업자를 통해 일본에서 직접 흘러들어오거나 미국을 경유해 국내에 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들 유통물량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지만 현재 상가나 유통점을 통해 거래되고 있는 수량을 감안하면 적어도 1000대 정도에 이를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중고 복사기 제품은 그동안 시중상가에서 한달에 한두 대 정도씩 음성적으로 거래돼 왔으나 이번처럼 대량이 조직적으로 유통되기는 처음이다.

특히 이들 제품은 밀수업자들이 선박을 통해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부 수입업자들이 완제품 또는 부품을 수입해 조립 판매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주의가 요망된다.

절전형사무기기 작년 415만대 판매

지난해 415만대의 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가 판매돼 향후 5년간 2184GWh의 에너지절약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2월 16일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사용하지 않는 대기시간에 절전기능을 갖춘 에너지절약마크 부착제품인 컴퓨터·모니터·프린터·TV·비디오 등 7개 품목의 지난해 판매실적이 415만대에 이르고 있어 향후 5년간 2184GWh(2184억원)의 에너지절약효과와 30만kW용량의 복합화력발전소 1기 건설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부터 에너지절약마크 부착제도를 실시한 이래로 연말까지 컴퓨터 85만대, 모니터 131만대, 프린터 53만

대, TV 92만대, 비디오 45만대 등의 에너지절약마크 제품이 판매됐는데 이는 전체 생산량의 43%를 차지한다. 특히 모니터는 전체 판매량의 66%가 에너지절약마크 획득 제품이다.

정부가 제시한 절전기준은 대기시간에 컴퓨터는 30W이하, 모니터는 5W이하, TV는 3W이하, 비디오는 4W이하, 프린터 등 인쇄 및 복사기기는 인쇄(복사)속도에 따라 절전모드로 변환토록 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이른 시일 내에 에너지절약마크 제품이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해 9월 발표된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의 제품구입시 에너지절약마크가 부착된 절전형 제품을 의무화했으며 삼성전자·LG전자 등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레이저>

미, 레이저 혈전용해 시술법 개발

미국의 한 연구팀이 뇌졸중을 일으키는 혈관내 혈액 응고 물질을 레이저로 제거하는 시술법을 개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 오리건 뇌졸중센터 웨인 클라크박사팀은 최근 열린 미 뇌졸중학회 제 25차 국제뇌

졸중회의에서 레이저를 이용한 뇌혈관 내 혈전 제거 치료를 받은 5명의 뇌졸중환자에 대한 예비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산 인터내셔널, 일본 코마츠의 엑시머레이저 국내 공급

일본 코마츠(Komatsu)의 반도체장비를 공급하는 산인터내셔널(대표 박상민 <http://www.misanltd.co.kr>)은 웨이퍼(wafer)에 패턴을 노광시켜 주는 Deep UV 스테퍼(step-per)와 스캐너(Scanner)의 노광원으로 사용되는 엑시머레이저(Excimer Laser·모델명 G21K)를 이달중 출시한다고 2월 10일 밝혔다.

'G21K' 레이저는 고감도 감광재(resist)에 대응하고 스캐너 노광장비의 웨이퍼 처리매수(Throughput)를 향상시킬 수 있는 레이저 조사량의 안정성(Laser Dose Stability)을 기존 $\pm 0.4\%$ 이하에서 $\pm 0.35\%$ 이하로 개선했다.

또한 엑시머레이저 파장의 선폭(Spectral Bandwidth)도 기존 0.6pm 이하에서 0.5pm 이하로 향상시켜 반도체장비의 설계규격을 만족시킬 수 있다.

<기 타>

세일테크노의 SMD검사용 광학현미경

세일테크노(대표 김중석)는 미국의 비전엔지니어링이 만든 SMD검사용 광학현미경 '다이나스코프(Dynascope)'를 공급한다.

정밀 소형부품으로 구성돼 있는 각종 하이테크 관련 산업 분야 시료의 표면 및 소재의 정밀 분석 및 측정을 할 수 있다. 특히 이 제품은 몰드&다이, 프레스 파트, 플라스틱, 반도체, LCD, LCD백라이트 등의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정밀 분석이 가능하다.

제품헤드 내부에 특수 가공된 회전디스크를 내장해 고해상도의 콘트라스트를 지원해 선명한 상을 구현한다. 이와 함께 PC를 통한 데이터분석으로 고분해 및 주사방식의 선명한 상도 지원, 표면의 정밀분석 및 측정도 할 수 있다. 이 제품은 또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작업자 눈의 피로 등을 최소화한 기능도 갖추고 있다.

IMT2000 가입자, 2006년 이동전화 추월

오는 2002년에 선보일 차세대 동영상 이동통신(IMT-2000)이 서비스 개시 초기에는 어려움을 겪겠지만 4년후인 2006년에는 가입자가 기존 이동전화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이 21일 펴낸 'IMT-2000 서비스의 수요예측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IMT-2000 서비스 초기에는 카메라 부착 등으로 단말기 가격이 높고 기존 휴대전화에 비해 특별한 차이점이 없어 한동안 고소득층과 전문가 계층에서만 주로 사용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 서비스업체들이 고품질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단말기 가격과 이용요금이 비쌀 경우 IMT-2000 서비스가 확산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또 다시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초기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IMT-2000 서비스 상용화 초기에는 데이터 전송속도가 384Kbps에 머물 것이며 시간이 경과하면서 2005년에는 1Mbps 이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서비스 초기에는 기존 이동전화에서 IMT-2000로의 가입자 전환이 느리게 진전되다가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IMT-2000 가입자의 경우 2002년에 상용화된 후 서서히 증가, 2005년 중반에 1,000만 명을 돌파하고 2006년에는 기존 이동전화 가입자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는 또 전체 통화량에서 데이터가 차지하는 비

중은 2002년에 28%에서 2006년에는 47%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KISDI는 작년 10월 5개 이동통신사업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했던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수는 올해를 고비로 둔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아파트 승강기 CCTV 의무화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아파트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무인 감시카메라(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아파트 주민들에 대해 자율경비체제 확립을 고취하기 위해 아파트 지하주차장뿐 아니라 출입구, 승강기 내부, 인근 공원 등에도 CCTV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2월 2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주택건설촉진법에 반영, 적용키 위해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라며 "올 하반기 법령 개정을 목표로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